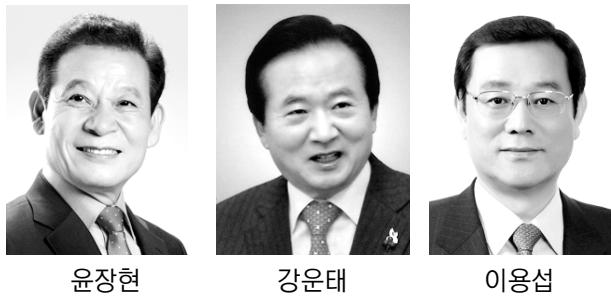


광주시장 선거 '정책모드' 전환



윤장현 “좋은 청년일자리 확대”

강운태 “2순환로 통행료 500원”

이용섭 “주차장 걱정 없는 광주”

광주시장 선거가 지나친 정치공방으로 치달으면서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이 선거운동 개시일(22일) 이틀전인 20일부터 일제히 정책선거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전날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한 폭력사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던 각 후보들은 20일 정책공약 기자회견 등을 갖고 선거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일부 후보는 그동안 몇 가지 정책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으로 사실상 정책공약 발표보다는 '후보 단일화' '지지선언을 통한 새 혁신' 등에만 주력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무소속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1200원(승차 기준)을 받는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 IC~지원 IC) 통행료를 50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관리운영권을 매입하면 통행료 인화가 가능하다”며 “영업용 택시 통행료 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면 재

정절감 효과가 연평균 580억원에 달하고 이 중 83억원을 통행료 인하에 따른 보전금으로 사용하면 된다”며 “영업용 택시의 통행료를 면제해주면 제2순환도로 이용 활성화와 시내 교통체증 완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섭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상무지구, 재래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권밀집지역과 주택지역의 공영 주차장을 확보해 주차 걱정 없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영 주차장 1만대 규모를 신규로 확충하고 상권밀집 지역의 학교·공공기관·종교시설·대형빌딩 등의 부설 주차장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는 지난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더 좋은 청년일자리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청년 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일자리 전담하는 ‘청년 허브’ 설립 ▲안전관리·소방재난·사회복지 등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증설 ▲시 출자·출연기관의 청년의무고용 3% 실현 및 향후 5%까지 확대 ▲시와 연구기업의 출연을

받아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 청년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무소속 이병완 후보도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적 혁신을 통해 자부심과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직사회 혁신 방안으로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능력과 인성, 혁신, 정령, 조직 내 화합 등의 척도를 투명하게 검증하겠다”며 “또한, ‘시정기록관제’를 도입해 시정의 전반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공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외에도 매일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재 후보와 통합진보당 윤민호 후보, 노동당 이병훈 후보도 최근 정책공약을 내놓으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한편, 광주 경실련은 최근 “특정 정당의 비민주적인 공천 및 가치와 신념에 상반없는 단일화 등 정치공약적인 형태로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기 어렵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수 있다”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공약 제시를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세계 5대 비엔날레에

태국, 계엄령 선포



미술매체 '아트넷' 선정

광주비엔날레가 미술 인터넷 매체인 아트넷(artnet)이 선정한 세계 5대 비엔날레에 이름을 올렸다.

아트넷은 지난 19일 비엔날레의 역사와 관객 수, 예산, 영향력, 큐레이터 등 다양한 지표를 산출해 세계 20대 비엔날레를 선정, 발표했다.

상위 5대 비엔날레에는 베니스비엔날레와 카셀 도큐멘타, 휘트니비엔날레, 유럽 순회비엔날레인 마니페스타, 광주비엔날레가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선정된 상위 5

대 비엔날레 중 5년마다 열리는 카셀 도큐멘타와 미국 국내 비엔날레인 휘트니 비엔날레를 제외하면 국제 비엔날레로는 사실상 3대 비엔날레에 광주가 선정된 셈”이라고 밝혔다.

아트넷은 광주비엔날레를 선정하면서 관객의 수와 예산,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 큐레이터 등을 언급했다.

특히 2008년 광주비엔날레 감독을 맡은 오쿠이 엔위저(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예술감독)와 2010년 광주비엔날레 감독을 지낸 마시밀리아노 지오니(뉴욕 뉴뮤지엄 부관장, 2010년 베니스비엔날레 예술감독) 등을 언급했다.

또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의 특성과 비엔날레의 역사를 함께 열거했다.

세계의 비엔날레 순위가 공식적으로 집계돼서 발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반정부 시위 사태로 정국 위기가 깊어지는 태국에서 군부가 20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군부는 이날 새벽 군 TV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며 이는 “쿠데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군은 “국민은 당황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조치는 국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은 평소대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국에서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가 권력남용 혐의로 일락 친나왓 전 총리를 해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 경찰과 시위대간 충돌로 지금까지 28명이 숨지고 800명이 가까이 다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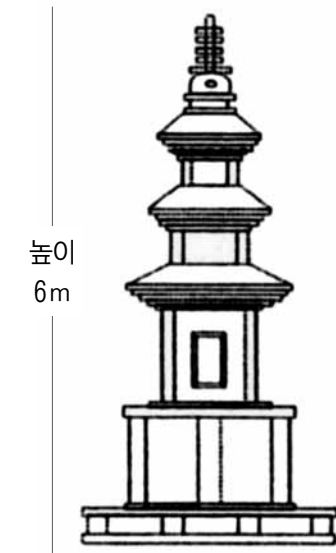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태국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여행경보 상황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월출산에 최장 가시거리 석탑 있었다



영암읍 덕진면 영보리 일대에서 바라본 월출산 전경 사진에 사자봉 삼층석탑의 가상 이미지를 합성한 모습.



높이 6m

- 천황봉 동남쪽 해발 550m에 위치
- 월출산 기운 빠져 나가는 것 방지 위한 '비보탑'
- 8km 밖 영암읍 덕진면 영보리에서도 식별 가능



월출산 사자봉 삼층석탑 유구



월출산 사자봉 거북형 석등 대좌

합동조사팀, 고려초 추정 석등 석재파편 확인

영암 월출산 산자락에 나주에서도 볼 수 있는 탑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 남산 등 산에 탑을 쌓는 경우는 있지만 인근 마을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산자락 탑은 국내에서는 흔치 않다.

영암문화원(원장 김한남)과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승희) 공동 조사팀은 20일 “월출산 동남쪽 사자봉 초기 삼층석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최근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석 등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파편을 찾아냈다.

이 파편을 통해 추정된 석탑은 천황봉 동남쪽 해발 550m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평탄한 지형에 위치한다.

문화원 관계자는 “산등성이 뒤편에 다른 산이 없어 멀리서도 석탑의 형태가 쉽게 확인되는 이곳에 의도적으로 탑을 쌓은 것 같다”면서 “맑은 날 영암포에서도 이 산자락을 볼 수 있는 점으

로 미뤄 나주 일대에서도 이 탑이 보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곳은 8km밖에 있는 영암읍 덕진면 영보리 영보정에서 식별이 가능하며, 맑은 날에는 나주시 금성산에서도 탑의 형태를 가늠할 수 있다.

현재 탑은 무너져 땅 속에 반쯤 묻혀 있는 상태에 있다. 영암문화원과 월출산 국립공원 합동조사팀은 석재 파편 조사를 통해 탑의 파편 25%가량을 찾아냈다. 또 이를 통해 탑의 원형도를 완성했다. <원형도 참고>

산자락 이름을 따 ‘사자봉 삼층석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탑은 전형적인 신라시대 삼층석탑의 형식을 계승하고 있다. 강진군 성전면 무위사 삼층석탑(946년)과 영암읍 용암사지 삼층석탑(1006년·보물 제1283호)과 유사하다.

이런 탑은 허약한 국토의 지세를 다스리려는 ‘비보탑(裨補塔)’의 성격이 지니며, 영암 출신 도선국사(827~898년)의 풍수사상에서 기인한다.

사자봉 삼층석탑은 월출산의 영험한 기운이 달아나는 위치에 존재함으로써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문화원은 보고 있다.

또 이 탑은 고려 초에 건립돼 월출산의 한 봉우리를 형성하였고, 19세기 중엽 이전에 붕괴돼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자봉 삼층석탑은 월출산 화강암을 다듬어 만든 것으로 2층 기단과 3층의 탑신부, 상륜부를 포함해 전체 높이가 6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단부의 한쪽 길이는 3m, 1층 옥개석 1.84m, 2층 옥개석 1.46m, 3층 옥개석 1.18m로 확인됐다. 이는 전남지역의 탑 중에서도 큰 편에 속한다.

사자봉 삼층석탑 주변에는 거북이형 석등 대좌, 양면석불, 절터가 함께 발견됐다. 거북이 형태의 받침돌을 가진 석등은 별로 없으며, 현재 학계에 알려진 것은 여수 흥국사 석등과 영주 성혈사 석등 2기만이 전한다.

영암문화원 김한남 원장(67)은 “월출산은 수많은 불교유물유적을 간직한 유서 깊은 장소이며, 심층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월출산 불교문화재에 대한 종합 안내서 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선·대성수기자 moon@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칙 제 131226-중-52297호

老安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신세계백화점 / 밝은광주안과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광주새마을금고 신입직원 모집공고

저희 광주새마을금고에서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새마을금고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신입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구분: 계약직 신규 직원
2. 모집인원: 0명
3. 응시자격
 - 새마을금고 인사 규정에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응시방법
 - 기 간: 2014년 5월 14일 ~ 2014년 5월 21일
 - 접 수: 방문접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첨부: 최근3개월이내)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서 및 성적 증명서
6. 기타 사항
 - 근무조건: 주5일 근무제, 공휴일 휴무
 - 급여 및 복리후생은 당 금고 기준에 준함
7.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246번길 3(양동) 광주새마을금고
 - 기타문의 사항 TEL 062)361-3515 ~ 7(총무과)